



HUGEL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1.12

휴젤, '보툴리눔 액상형 기술' 특허 등록

- ▶ 보툴리눔 독소 및 안정화제, 안정화완충액 포함 제형화 기술 특허등록
- ▶ 향후 '무통증' 및 '부착형' 제품 개발 박차,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HUGEL

휴젤이 기존 가루 형태인 보툴리눔 독소 제품 '보툴렉스'를 액체 형태로 바꾼 연구개발법이 특허 기술로 인정됐다.

바이오 의약품 전문기업 휴젤(주)(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보툴리눔 독소 및 안정화제와 안정화 완충액을 포함하는 액상 제형 제조방법'을 특허 등록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휴젤이 특허 등록한 기술은 단백질로 이뤄진 보툴리눔 독신이 개발 및 유통 과정에서 변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조기술이다.

기존에는 보툴리눔 독신을 동결건조한 분말 형태로 개발해 단백질 변성을 예방했다면, 이번 액상형 기술은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안정화제 또는 안정화 완충액을 적용, 액체화함으로써 기존 대비 보관 및 유통 편리성과 체온, 수소이온농도(pH) 등 인체에 가장 적합한 조건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액상형 기술은 아르기닌 등 비동물성 제제를 활용해 독소 안정화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휴젤은 전세계 최초로 시술 시 통증을 없앤 '국소마취제 적용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주사 바늘 없이 붙이기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패치형 제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패치타입 제품은 정량의 독신을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미세침에 독신을 코팅한 제품으로, 주사 바늘이 필요치 않아 고통 없이 독신을 전달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HUGEL

손지훈 휴젤 대표집행임원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확보 차원에서 무통 액상형, 부착형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보툴리눔 독신 제품이 미용 분야에 그치지 않고 치료 영역까지 쓰임새가 커지고 있어 이번 액상형 기술 특허가 글로벌 시장 매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